



[산업]
수소경제 이끄는 두산
대산에
세계 최대 연료 발전소
06

metro[®] 경제

28일 Market Index			
↑ 코스피	2256.99	↑ 코스닥	807.85
	(+39.13)		(+6.62)
↑ 금리 (연고채)	0.813	↑ 환율 (원/달러)	1196.90
	(+0.010)		(+0.80)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대한민국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며 위기를 타개해나가는 청년 사업가들이 있다.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조명해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편집자주)



박지원 모디아티코 대표.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 소통으로 패션위기 극복

청년기업에 미래를 본다

여성 토털브랜드 ‘모디아티코’ 박지원 대표

코로나19로 전세계 패션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타격 없이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가 있다. 지난 2018년 1월 프렌치 스타일을 기반으로 첫발을 내디딘 여성 토털브랜드 ‘모디아티코(MODIATTICO)’의 박지원 대표 이야기다.

브랜드 첫 시즌 일본과 파리 등 5개국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출시 1년 만인 2019년 1월과 9월에는 세계최대패션수주회인 프랑스 파리 패션 전시회 ‘후즈넥스트’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사업 확장 브랜드 첫 시즌에 5개국 진출 1년만에 佛 파리 패션展 참여

취향·가치 중시 MZ세대 저격 니즈 파악해 시즌에 맞게 소개

모디아티코의 차별점은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디자인뿐만이 아니다. 박지원 대표가 직접 브랜드가 돼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박 대표의 소통은 남들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의 취향과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선사한다.

메트로신문은 박지원 모디아티코 대표가 그리는 브랜드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모디아티코의 장점은 무엇인가?

“디자인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세상에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든가, 뛰어난 디자이너를 잘한다기보다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에 맞는 상품을

시즌에 맞게 소개한다. 자세히 들어가면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디자인을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지만, 신발의 경우 주문제작을 하다 보니 개개인에게 맞는 컬러나 가죽소재, 마감의 방식이 다 달라진다. 디자이너로서 모두 체크하고 고민도 들여다 보면, 사이즈만 맞추는 것이 아닌 개인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신발이 완성된다. 홈페이지의 ‘only you’ 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디자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선보인 디자인과 다른 가죽, 색상 및 디테일이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맞춤제작이더라도 마진율을 고려했을 때, 선택의 폭을 넓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디아티코는 고객 만족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원하는, 또 필요한 디자인으로 제작하려고 노력한다.”

- 박지원 대표 자체가 브랜드가 된 거 같다.

“모디아티코 공식계정 팔로워는 약 6000명, 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 9000 명이다. 처음에는 개인이 부각되기 보단 브랜드와 디자인만이 주목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금은 SNS마케팅 및 SNS마케팅이 활성화됐고, 개인 브랜드가 주목받는 시대다. 물론 공식계정에서도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대응하고 싶다. 모디아티코 브랜드만으로 팔장착하지 않고, 다른 브랜드 제품과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여러 SNS에서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나 자체를 좋아하고 팔로우 업 하려고 한다.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알고 있으니 사적인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높은 친밀도를 느끼는 편이다.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고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신제품이 나오면 라이브로 상품을 설명해주고 제품을 추천 해주기도 한다.” (2면에 계속)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주식 VS 금·채권’의 아찔한 ‘동행’

위험-안전자산 가리지 않고 순환폭등
실물경제와 괴리... 투자 안늘고 버블만

C쇼크(코로나19 쇼크)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도 주식·금·채권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통상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금·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모든 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양새다.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위한 막대한 돈을 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 비이성적 주식...금값 최고치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3월, 국외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고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하자 19일 코스피는 저점(1457.64)을 찍었다. 외국인 과 기관의 매도세에 ‘동학 개미운동’이 일어났고, 빠른 반등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2200선을 유지하고 있다.

28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지난 3월 저점보다 약 54% 상승한 2256.99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22조4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5% 늘었다. 주식시장 투자자예탁금도 50조5100억원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동학 개미’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로빈후드, 일본은 닌자 개미, 중국에서는 인민 개미라 불리는 개인이 있다. 비교적 젊은 연령에 속한 이들은 SNS를 이용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고수익을 위해 테마주를 찾아다니는 특징이 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거래도 늘었다. 이날 오전 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현물의 1g당 가격이 8만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지난 27일 KRX 금시장의 거래량은 482kg으로 2014년 3월 시장이 처음으로 열린 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거래량인 272kg을 훨씬 앞서

는 수치다.

금값 상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 금값 역시 치솟았는데 27일(현지 시각)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6%(33.50달러) 오른 1931달러를 기록했다.

◆ “코로나19에 실물경기 회복 지연”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이 모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유동성이 실물 투자나 소비 대신 자산 버블을 유발한다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의 통화량(M2)은 305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5조4000억원(1.2%)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광의 통화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만기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 개념이다.

(4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young96@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 서명을 마친 노사정 주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 대통령,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文 “경제위기 극복 위한 굳건한 발판 될 것”

사회대화기구 경사노위 8차 본회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 체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된 데 대해 “오늘(28일)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사·정 협약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고용 유지에 대한 확약 부재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노·사·정 협약

등 11개 안전에 대해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데 대해 노·사·정 대표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협약은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과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 생태계 보전 ▲사회 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노·사·정의 협약 이행 점검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협약에 대해 “오늘 합의는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

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가운데 노·사·정이 협력한 데 대해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노·사·정은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